결 정

2018 - 3103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월 31일자(캡처시각) 「김종민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 "억울하다"」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 31. 11:13>

『김종민 사기혐의로 징역형 선고…"억울"
[일간스포츠] 입력 2018.01.31 09:07 수정 2018.01.31 09:09
'착하게 살자' 출연진들이 실형을 받고 교도소 생활이 시작된다.

‘착하게 살자’ 3화 예고 영상에는 치열했던 재판을 끝내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출연진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무죄를 간절히 바랐던 출연진들은 확정된 죄로 인해 다시 차디찬 교도소로 돌아가게 된다. 유죄를 선고 받은 출연진들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다. 특히 카키색에서 암청회색으로 달라진 의복 색상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변화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숨 막히는 긴장감이 엇도는 교도소에 새로운 사람들이 죄에 연루되어 등장한다. 기자들에 둘러싸여 억울한 표정을 지었던 김종민과 압도적인 실루엣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돈스파이크가 그 주인공이다.

김종민과 돈스파이크는 각각 ‘사기’와 ‘장물취득’이란 죄목이 방송 전 캐릭터컷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뉴페이스의 등장과 함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본격적인 교도소 생활기는 오는 2일 저녁 9시 방송되는 JTBC ‘착하게 살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3238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JTBC 프로그램 ‘착하게 살자’ 3화의 주요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무죄를 기대했던 김종민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자 기자들에 둘려 싸여 억울한 표정을 짓지만 결국 기결수로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것을 밝히지 않고「김종민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 “억울하다”」라고 제목을 붙였다. 마치 실제 사건인 것처럼 독자들을 혼동케 했다.

이는 기사 내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김종민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위 원	정 숭 호	
	장 명 국	
	박 재 현	
	장 인 철	
	김 규 식	
	강 희	
	하 윤 수	
	김 영 모	
	박 미 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